

【 2013년 9월 7일 시행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어】
 - (확정 정답) -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	㉣	㉢	㉡	㉡	㉣	㉤	㉤	㉤	㉠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	㉣	㉤	㉢	㉠	㉣	㉡	㉣	㉠	㉢

1. 답 ㉡

알아맞히다 : 요구 또는 기대가 되는 답을 알아서 맞게 하다.

[용례] 답을 알아맞히다 /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다 /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알아맞히다. / 그는 다른 사람의 나이를 잘 알아맞힌다. / 그 점쟁이는 비극이 덮쳐 올 때마다 매번 그것을 신통하게 알아맞혔다.

(※ 주의 : ‘알아맞추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하던지 말던지 (x) → 하든지 말든지 (o) : ‘-든지’는 어미.

품사	-던지	-든지	
	어미	조사	어미
의미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전혀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이나 대상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동작이나 행동, 상태 등이 어느 것이든 벌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용례	(㉠) 얼마나 <u>출던지</u> 손이 곱아 퍼지지 않았다. (㉡)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 동생도 놀이가 재미있었던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 사과 <u>든지</u> 배 <u>든지</u> 다 좋다. (㉡) 함께 <u>든지</u> 혼자서 <u>든지</u> 잘 놀면 되었지. (㉢) 그 아이는 말씀 <u>씨러던지</u> 미소라 <u>던지</u>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상냥하다.	(㉠) 집에 가 <u>든지</u> 학교에 가 <u>든지</u> 맘대로 해라. (㉡) 노래를 부르 <u>든지</u> 춤을 추 <u>든지</u> 간에 네 맘대로 해라. (㉢) 싫 <u>든지</u> 좋 <u>든지</u> 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③ 들어나 (x) → 드러나 (o) : ‘드러나다’는 동사로서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절대 ‘들어나다’로 쓰지 않는다. ‘들어나다’는 존재하는 않는 말이다.

④ 믿음으로 (x) → 믿으므로 (o) : 선택항의 의미에 맞게 앞절과 뒷절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미 ‘-므로’를 써야 옳다.

품사	-으로(씨)	-므로
	격 조사	어미
의미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 시간의 한계 등을 나타낼 때 쓰임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사’ 뒤에 붙어)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용례	(㉠) 콩 <u>으로(씨)</u> 메주를 쏜다. (㉡) 그는 진실해야 한다는 이념 <u>으로(씨)</u> 국가를 다스렸다. (㉢) 시험에 떨어진 게 이번 <u>으로(씨)</u> 벌써 세 번째다. (㉣) 약 <u>으로</u> 병을 고치다.	(㉠) 상대가 너무 힘이 센 선수 <u>이므로</u> 조심해야 한다. (㉡) 그는 부지런하 <u>므로</u> 성공할 것이다. (㉢) 비가 오 <u>므로</u> 외출하지 않았다. (㉣) 그는 수업 시간마다 졸 <u>므로</u> 시험 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 그는 계약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다.	(㉡) 선생님은 인격이 높으시므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다.
(㉢)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 ‘-므로’는 ‘-기 때문에’란 까닭의 의미를 나타내고, ‘-으(로)씨’는 ‘-는 것으로(씨)’란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므로’는 ‘-므로써’가 되지 않지만 ‘-으(로)씨’는 ‘한 살을 더 먹음으로써 서른이 되었다.’와 같이 ‘-으(로)씨가 가능하다. <출처 : 국립국어원>

⑤ 바램 (x) → 바라 (o) : ‘바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란 뜻을 지닌 명사. 원래 동사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형태. ‘바램’이란 말은 없는 말이다.

2. 답 ④

이 문제에서는 중의적 표현이 없는 선택항을 골라내라고 하고 있다. 중의적 표현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나 다의어(多義語)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적 중의성’, 수식어나 접속어, 조사 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중의성’을 아울러 뜻하는데, 선택항들은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한 문장들이다. 선택항 ④는 이러한 중의적 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예쁜’이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소녀’인지 ‘옷’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소녀가 예쁘다’는 의미로 비취질 수도 있고 ‘소녀의 옷이 예쁘다’는 의미로 비취질 수도 있다.
- ② 이 경우는 문장 내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중의적 표현이 발생한 경우이다. 즉 문장의 주어를 ‘선생님’으로 할 것인지 ‘학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생님’을 주어로 하면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학생’을 주어로 하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여러 명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 ③ ‘아름다운’이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고향’인지 ‘하늘’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고향이 아름답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하늘이 아름답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 ⑤ ‘키가 큰’이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형’인지 ‘형의 친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3. 답 ③

표준발음법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맛없다’는 [마덟따]로 발음하는 원칙만 인정하고 예외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항 ⑤의 경우처럼 ‘맛있다, 멋있다’는 [마싯따], [머싯따]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는 모두 표준발음법 제2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례들이다.

<p>※ <표준발음법>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p> <p>[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p> <p>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모음 충돌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되+어→되여’는 [되여]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때로 모음 충돌을 피한 발음인 [되여]가 쓰이기도 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허용에 대하여는 ‘이오, 아니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p>
--

4. 답 ②

아직 어려서 밥을 지을 지 모른다. (x) → 아직 어려서 밥을 지을 줄 모른다. (o)
 선택항 ②는 의존명사를 아주 잘못 쓴 경우이다. 의존명사인 ‘지’에는 ‘시간상 얼마동안’이란 의미만 있을 뿐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의미는 없다. 이런 경우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존명사 ‘줄’로 바뀌어야 한다.

[※ 비교하기]

	지	줄
품사	의존명사	의존명사
의미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어떤 방법이나 샘속 따위
용례	(ㄱ) 그를 만난 <u>지</u> 도 꽤 오래되었다. (ㄴ) 집을 떠난 <u>지</u> 어언 3년이 지났다. (ㄷ) 강아지가 집을 나간 <u>지</u> 사흘 만에 돌아왔다.	(ㄱ) 새댁은 밥을 지을 <u>줄</u> 모른다. (ㄴ) 그가 나를 속일 <u>줄</u> 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ㄷ)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u>줄</u> 모른다.

[오답 풀이]

- ① 의존명사 ‘데’는 ‘(1) 특정 장소 또는 곳, (2) 특정한 일이나 물건, (3) 특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말인데, 선택항에서는 ‘(1) 장소 또는 곳’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 ③ 의존명사 ‘것’은 ‘(1) 추상적인 사물이나 일 따위를 나타낼 때, (2) 사람이나 동물을 낮추어 표현할 때, (3) 어떤 사람의 소유물을 나타낼 때, (4) 화자의 결심이나 확신을 나타낼 때, 화자가 의도하는 추측이나 소신 따위를 나타낼 때, (5) 명령문의 어미로서 기능할 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가능한데, 선택항에서는 ‘(4) 화자의 결심이나 확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이다.
- ④ 의존명사 ‘척’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 말로 선택항에서 옳게 쓰였다.
- ⑤ 의존명사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뜻으로 선택항에서 옳게 쓰였다.

5. 답 ②

머리가 벗겨진 노인 (x) → 머리가 벗어진 노인 (o)

	벗겨지다	벗어지다
의미	덮여 있는 물건이 어떤 힘에 의하여 떼어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
용례	(ㄱ) 신발이 짝 끼어 잘 <u>벗겨지지</u> 않는다. (ㄴ) 바람이 불어 모자가 <u>벗겨졌다</u> .	(ㄱ) 노인의 <u>벗어진</u> 이마. (ㄴ) 머리가 <u>벗어지다</u> .

[오답 풀이]

- ① ‘나래’는 흔히 문학 작품에서 ‘날개’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날개’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말이다. ‘날개’와 ‘나래’는 복수표준어이다.
- ③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선택항과 같이 ‘다르다’를 쓴다. 이 자리에 ‘틀리다’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 ④ ‘곰기다’는 ‘상처가 깊은 자리에 탄탄한 멍울이 생기다’라는 뜻을 지닌 고유어이다.
- ⑤

	조리다	졸이다
의미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다.	(ㄱ)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게 하다. (동사 ‘졸다’의 사동형태) (ㄴ)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용례	(ㄱ) 생선을 <u>조리</u> 다. (ㄴ)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u>조</u> 렸다.	(ㄱ) 찌개를 <u>졸</u> 이다. (ㄴ) 마음을 <u>졸</u> 이다. / 가슴을 <u>졸</u> 이다.

6. 답 ④

‘서투르다’는 (ㄱ)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 (ㄴ) 전에 만난 적이 없어 어색하다, (ㄷ)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ㄹ) 앞뒤를 재어 보는 세심함이 없이 선부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다. 이 말을 줄인 표현이 ‘서툴다’이다. 따라서 선택항처럼 ‘서투른’으로 써도 맞고 ‘서툰’으로 써도 무방하다.

[오답 풀이]

- ① 인두겹 (x) → 인두겹 (o) : ‘인두겹’은 ‘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이르는 말.
- ② 눈꼽 (x) → 눈곱 (o) : ‘눈곱’은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붙은 것’을 이르는 말. 된소리 표기가 아님에 주의한다.
- ③ 설레여요 (x) → 설레어요 (o) : 기본형 ‘설레다’의 어간 ‘설레-’에 어미 ‘-어요’가 결합한 말.
- ⑤ 눈꺼풀 (x) → 눈꺼풀 (o) : ‘눈꺼풀’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갓’을 이르는 말. 이보다 작은 말이 ‘눈까풀’이다.

7. 답 ⑤

‘ㄱ, ㄷ, ㅂ’과 같은 파열음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 것이 로마자 표기의 원칙이다. 따라서 ‘곡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옳다. 곡성 : Gokseong (o) → 절대 ‘Gogseong’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전사법 체계’를 쉬운 말로 바꾸면 ‘표음주의적 표기 체계’, 즉 ‘소리내어 적는 표기 체계’를 뜻한다. 국회직 시험에서는 다른 용어로 자주 변환되어 출제되고 있으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③ 반달표 사용을 허용하던 과거의 체계에서는 ‘성남(Söngnam)’, ‘대전(Däjön)’ 등과 같이 표기했으나, 현재는 이 반달표를 사용하지 않고 ‘성남(Seognam)’, ‘대전(Daejeon)’과 같이 두 개의 로마자를 중복시켜 표기하고 있다.
- ④ 등고자비(登高自卑 : 오를 등,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출 비)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 다른 뜻으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춘다’는 뜻도 있다.

8. 답 ⑤

선택항 ⑤에 사용된 연결어미 ‘-고’는 앞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뒷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나머지 선택항은 모두 대등적인 의미로 앞절과 뒷절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 ①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
- ②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③ ‘-지만’은 ‘-지마는’이 줄어든 말.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④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

9. 답 ⑤

역지사지(易地思之 : 바꿀 역, 땅 지, 생각 사, 갈 지) : 입장을 바꿔서 생각함.
 이심전심(以心傳心 : 써 이, 마음 심, 전할 전, 마음 심) :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함.
 [오답 풀이]

- ①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 새, 늙은이 옹, 갈 지, 말 마) : 변방 노인의 말. 인생사의 변화가 무쌍해서 그 길흉화복을 절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는 말. 옛날 중국 어느 변방에 살던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준마를 한 필 끌고 와서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었으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므로 노인이 다시 낙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들이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중국 <회남자>의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말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 : 구를 전, 재앙 화, 변할 위, 복 복) :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됨.
 → 두 고사성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 ② 관포지교(管鮑之交 : 피리 관, 저린어물 포, 갈 지, 사귄 교) : 관중과 포숙의 사귄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단금지교(斷金之交 : 끊을 단, 쇠 금, 갈 지, 사귄 교) : 쇠라도 자를 만큼 강한 교분이라는 뜻으로, 매우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
- ③ 일거양득(一舉兩得 : 하나 일, 들 거, 둘 양, 얻을 득)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일석이조(一石二鳥 : 하나 일, 돌 석, 둘 이, 새 조) :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
- ④ 막상막하(莫上莫下 : 없을 막, 위 상, 없을 막, 아래 하) :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난형난제(難兄難弟 : 어려울 난, 만이 형, 어려울 난, 아우 제) :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서로 비슷하여 그 우열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룸.

10. 답 ①

질곡(桎梏 : 차꼬 질, 쇠고랑 곡) : 원래 옛날에 사용하던 형구인 차꼬와 수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애로(隘路 : 좁을 애, 길 로) : 좁고 험한 길. 어떤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
 [오답 풀이]

- ② 포악(暴惡 : 사나울 포, 악할 악) : 사납고 악함.
 속지(x) → 답지(逖至 : 뒤섞일 답, 이를 지) : 주문 따위가 한 곳으로 몰려듦.
- ③ 촌탁(村度 : 헤아릴 촌, 헤아릴 탁) :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
 고망(x) → 고향(膏肓 : 살찐 고, 명치끝 황) : 심장과 횡격막의 사이.
- ④ 분별(分別 : 나눌 분, 나눌 별) : 사물을 구분하여 가름.
 간고(x) → 간과(看過 : 볼 간, 지날 과) : 대충 보아 넘김.
- ⑤ 매진(邁進 : 갈 매, 나아갈 진) : 어떤 일에 전력을 다함.
 전갈(x) → 전개(前揭 : 앞 전, 걸 게) : 앞으로 내어 거는 것.

cf. 전갈(傳囑 : 전할 전, 꾸짖을 갈) : 사람을 시켜서 안부 따위를 전함.

11. 답 ㉢

지문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중 ‘춘사(春詞)’ 셋째 수이다. 이 대목에서는 자연(바다)에 묻혀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 ‘어부(漁父)’가 봄바람이 살짝 부는 어느 날에 배를 타고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아가는 상황을 눈 앞에 보이는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계절변화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전문 풀이]

동풍이 잠간 부니 물결이 곱게 이는구나
 동쪽호수(東湖)를 돌아보며 서쪽호수(西湖)로 가지구나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
 - 원래는 ‘돌 드러라 돌 드러라 /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와 같은 후렴구가 중간에 등장한다.

12. 답 ㉣

‘만복사저포기’를 포함하여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비현실적인 소재(산 자가 귀신과 사랑을 나누다든지 산 자가 용궁이나 저승으로 놀러간다든지 하는 설정)를 현실감있게 서술함으로써 그만큼 간절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살았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세상으로 출사를 할 수 없었던 작가의 처지를 노래하고 그러한 모순적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데 깊은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염정 소설’이면서 귀신과 사람의 사랑을 소재로 다룬 ‘명혼(冥婚)소설’이고,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평범하지만은 않은 ‘전기소설’이다. 하지만 선택항 ㉣와 같은 내용은 이 작품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다. 고난과 고난의 극복사는 ‘바리데기 설화’와 같은 ‘서사무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오답 풀이]

- ① 주인공 양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가 또한 들지 못한’ 고독한 노총각이다.
- ② 제시된 부분의 마지막에서 보이듯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설정이라든가 탐돌이를 하던 여인이 알고 보니 귀신이라든가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 ③ ‘한 그루 배나무 꽃’, ‘청춘에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 ‘외로이 나는 비취 새와 원앙새’ 등의 시 표현을 통해 인물의 고독함이 잘 표출되고 있다.
- ⑤ 수사적 표현은 ‘직유, 은유, 의인, 활유, 의성, 의태, 풍유, 대유, 중의, 상징, 우화’ 등과 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시문에서는 ‘방 밖에 서 있는 한 그루 배나무는 ~ 꽃이 활짝 피어 마치 옥으로 된 나무에 은덩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라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 답 ㉤

눈만 말뚝거릴 뿐(→ 의존명사. 앞말과는 띄어 쓴다.)

학교에서뿐(→ 보조사. 앞말인 명사와는 붙여 쓴다.)

[※ 비교하기]

	뿐	뿐
품사	의존명사 (앞말이 관형어거나 ‘-았다’의 형태)	보조사 (앞말이 체언이나 부사어)
의미	(ㄱ)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 (ㄴ)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함	(ㄱ)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ㄴ)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
용례	(ㄱ)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ㄴ)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ㄱ)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ㄴ)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

(ㄷ) 모두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ㄹ) 학생들은 약간 기가 질려서 눈만 말뚱거릴 뿐 대뜸 반응은 없다. (ㅁ)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ㄷ) 그 아이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ㄹ) 그는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다.
---	--

[오답 풀이]

- ① 좋을대로 (x) → 좋을 대로 (o) : 의존명사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법 대로 (x) → 법대로 (o) : 조사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대로	대로
품사	의존명사	조사 (체언 뒤에 붙여 씀)
의미	(ㄱ)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ㄴ)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ㄷ)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즉 (ㄹ)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해진 (ㅁ)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ㄱ)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 (ㄴ) 따로따로 구별됨
용례	(ㄱ)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 (ㄴ)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ㄷ) 틈나는 대로 찾아보다. (ㄹ) 지칠 대로 지친 마음. (ㅁ)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	(ㄱ)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ㄴ)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ㄷ)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 말고 살자. (ㄹ)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

- ② 대궐 만큼 (x) → 대궐만큼 (o) : 앞문장의 ‘만큼’은 의존명사라서 띄어 쓰지만, 뒷문장의 ‘만큼’은 조사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만큼	만큼
품사	의존명사(앞말이 ‘-은, -는, -을’ 등의 어미로 끝남)	(격) 조사 (앞말이 체언이나 조사가 됨)
의미	(ㄱ) 앞의 내용에 상응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용례	(ㄱ)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ㄴ) 주는 만큼 받아 오다. (ㄷ)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ㄹ)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ㄱ)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ㄴ)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ㄷ) 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어. (ㄹ)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 ③ 본바와 같이 (x) → 본 바와 같이 (o) : ‘바’는 의존명사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통보하여 온 바 (x) → 통보하여 온바 (o) : 어미인 ‘-나바/-는바/-던바/-은바’는 앞말과는 붙여 써야 한다.

	바	-나바/-는바/-던바/-은바
품사	의존명사	어미
의미	(ㄱ)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 (ㄴ) 일의 방법이나 방도 (ㄷ) 앞말이 나타내는 어떤 기회나 형편 (ㄹ) 말하는 이의 주장에 대한 강조	(ㄱ) 뒷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앞절의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ㄴ) 뒷절의 사실과 관련 있는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 ‘-는데’, ‘-니까’와 같은 의미
용례	(ㄱ)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ㄴ) 어찌할 바를 모르다.	(ㄱ)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ㄷ)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ㄴ) 우리의 나이갈 길은 이미 정해진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ㄹ)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ㄷ)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④ 그 책을 다 읽는데 (x) → 읽는 데 (o) : ‘데’는 의존명사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날씨가 추운 데 (x) → 추운데 (o) : ‘-(ㄴ)데’는 앞말과는 붙여 써야 하는 어미이다.

	데	-ㄴ데/-는데/-던데/-은데
품사	의존명사	어미
의미	(ㄱ) ‘곳’ 또는 ‘장소’ (ㄴ) ‘일’ 또는 ‘것’ (ㄷ) 어떠한 경우	(ㄱ)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반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용례	(ㄱ) 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ㄴ) 그가 사는 데는 여기서 멀다. (ㄷ)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ㄹ)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ㅁ)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만 목적이 있다. (ㅂ)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ㅅ)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	(ㄱ)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ㄴ)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ㄷ)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ㄹ) 나무가 정말 큰데. (ㅁ)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신데.

14. 답 ③

한글은 희랍과 로마의 알파벳과 달리 ‘중서(縱書 : 세로쓰기)’도 할 수 있고 횡서(橫書 : 가로쓰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래의 문자 생활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다. 이 요지에 가장 가까운 선택항은 ③이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미래 문자 생활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글쓴이는 한글의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 ④ 첫째 단락 앞부분에서 ‘한글 체계와 알파벳 체계의 차이’를 돌려 말하고 있다.
- ⑤ 둘째 단락에서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15. 답 ①

[가]에서는 ‘뻐꾸기 울음소리’(청각)와 ‘푸른 버들숲’(시각)의 대비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나]에서는 ‘외딴 집에 사는 눈 먼 처녀’(시각)가 ‘피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늦봄의 어느 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의 설명으로만 적절하다. ‘눈 먼 처녀’의 고독감을 묘사하면서 시인 자신의 고독하고 쓸쓸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자연과 인간의 대조’는 [가], [나] 모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④ [가]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⑤ [가]는 ‘빠꾸기→버들숲→어촌 마을’로 시선의 이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나]는 ‘외딴 집→그 안에 있는 눈 먼 처녀’로 시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즉 둘 다 시선의 이동이 있어서 동적이다.

16. 답 ④

<용비어천가>는 조선 개국 서사시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이다. 최초의 약장이기도 하다. 전체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제된 부분은 마지막 125장이다. 1장과 2장, 109장부터 125장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장에서 중국의 고사를 먼저 기술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선 건국 시조 6명의 업적을 뒤에 덧붙여 기술하였다. 12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대 옛날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이어) 어진 덕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왕조의 운명이 끊어 없을 것이니
성신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나라가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후대) 임금들이여 명심하십시오. (하나라 태강왕의 경우처럼) 낙수에 사냥가서 할아버지(하나라의 시조인 우왕)의 공덕만을 믿고 있을 것입니까?
→ 이 125장에 관련된 고사는 아래와 같다.
신라 말 풍수도참을 퍼뜨렸던 승려 도선의 비기(秘記)에 의하면, 삼각산(지금의 서울 남산) 남쪽 곧 한강의 북쪽인 곳에 도읍을 정하면 나라가 부흥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로 하여금 지금의 경복궁이 위치하는 곳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한다. [진질]
중국 하(夏)나라의 시조는 우왕(禹王)이다. 그의 손자인 3대 태강왕이 정사를 게을리하고 사냥에만 취미가 있어서, 낙수 남쪽까지 내려가서 백 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라의 제후국의 하나였던 유궁국의 수장 후예가 남아있던 무리들을 선동하여, 하북(河北)에서 태강왕을 막아 오지 못하게 한 뒤 그를 폐위시켜 버리고 태강왕의 동생 중강(中康)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후 하나라는 중강의 손자인 소강(小康)이 다시 왕위를 찾기까지 80여 년의 세월을 정치적 혼란기로 보냈다. [후절]

17. 답 ②

‘가떨다’는 재산이나 자원 등이 넉넉하다는 뜻의 형용사 고유어이고 ‘가난하다’는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여 괴로운 마음 상태에 있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서로 반의관계에 있는 어휘들이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동의관계의 어휘들인데 왼쪽에 있는 어휘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어휘들은 지금 기준에 있던 고유어를 밀어내고 현대의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한자어휘들이다.

- ① 뉘 : ‘산(山)’의 옛말
- ③ 열우다 : ‘결혼(結婚)하다’의 옛말
- ④ 어위크다 : ‘관대(款待)하다’, ‘너그럽다’의 옛말
- ⑤ 죽사리 : ‘생사(生死)’, ‘죽살이’의 옛말

18. 답 ④

공명과 한니발은 개인으로 놓고 볼 때 분명 영웅임에는 틀림없지만, 역사에 남은 결과는 패배한 국가를 이끌었던 지략가요, 지도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 앞에는 ‘(ㄱ) 패배자’란 수식어가 따라붙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혹은 ‘(ㄴ) 인물’로 싸운 것이 아니라 ‘(ㄷ) 국가’라는 이름으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존재감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쟁에서의 ‘(ㄷ)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두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였다.

19. 답 ①

(가)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되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마)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하는 것은 상세한 계획과 그 적용 방법이 매우 잘 조직되어야 가능하다. → (다) 이들 네 영역에 대한 연구는 모국어와 외국어 교육에서 매우 자세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그 결과들은 한국어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 (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현장의 교사는 이러한 영역의 이해와 함께 가르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나) 그 최고의 방법은 교사가 통합적 관점에서 학습자에게 영역별 성취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된다. → (라) 그러한 (교사의) 고민과 성찰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0. 답 ③

선택항 ③은 본문의 네 번째 문장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서도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다.’의 내용과 반대되는 문장이어서 빈 칸에 들어갈 수 없다.
(지문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아니므로 나머지 선택항들은 빈 칸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음)